

1636년 설립 ... 美國사회 이끄는 최고지성의 산실

하버드대학교 (*Harvard University*)

3백6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하버드대학교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명문사립대학으로 찰스강 북쪽에 MIT와 이웃하여 자리잡고 있다. 많은 노벨상 수상자와 6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하버드대학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을 갖고 있으며 대학원생 3천명, 대학생 1만8천여명이 재학중이다.

하버드대학교는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시에 있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사립대학으로서, 1636년에 매사추세츠 식민지 일반의회 (Great and General Court, Massachusetts Bay Colony)의 결의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1638년에 유산과 도서를 기증한 젊은 목사 존 하버드 (John Harvard, 1607 - 1638)의 이름을 따서 하버드 칼리지 (Harvard College)라고 불렀다.

MIT와 이웃하여 자리잡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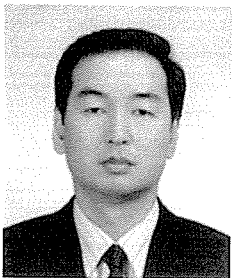
하버드대는 청교도적인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되었으며, 진실(veritas)을 교육의 이념으로 삼고 있고, 오늘날에도 이러한 정신은 변함없이 이어져 나가고 있으며,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최고의 지성을 키워나가는데 주력하고 있다.

보스톤시의 대표적인 찰스강(Charles River) 북쪽에 MIT와 이웃하여 자리잡고 있으며, 캠퍼스의 중심이며 초기의 건물들이 자리잡은 칼리지 야드 (College Yard)와 하버드 스퀘어 (Harvard Square)는 에릭 시갈의 영화 「러브 스토리 (Love Story)」의 무대로도 유명하다. 러브 스토리의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정경과 감미로운 선율은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칼리지 야드에는 광장 중앙에 존 하버드의 동상과 붉은 벽돌의 옛 건물들이 자리잡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18세기에 지어진 Massachusetts Hall (1720), Wadsworth House (1726)와 Holden Chapel (1744)은 가장 초기의 건물이며, Hollis Hall (1763), Harvard Hall (1766)은 그 후에 건립되었다. 미국 독립 후에 세워진 Stoughton Hall(1805), Holworthy Hall(1812)과 University Hall(1815)이 칼리지 야드의 외곽을 장식하고 있다.

대학교는 학부 과정과 대학원 과정으로 나뉘어 있는데, 학부 과정에는 문리과 대학(Liberal Art and Science)과 남자학생을 위한 하버드 칼리지 (Harvard College), 하버드 대학과 제휴하고 있는 여자대학 래드클리프 칼리지(Radcliffe College)가 있다.

문리과대학은 총 31개의 학과들과 2개의 계열(division)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과들은 3가지 분야[자연과학(Natural Sciences), 사회과학(Social Sciences), 고전 문학(Humanities)]로 되어 있고, 계열은 응용과학(Applied Sciences)과 의과(Medical Sciences)계열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하버드대학교에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공학계열의 학과가



朴 虎 君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없는 것이 특색이며, 이러한 점이 인근의 MIT와 상호 보완적인 입장에서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는 비결이기도 하다. 자연과학계열의 학과로는 수학, 물리, 화학, 생화학 및 분자생물학, 생물학, 천문학, 지구과학, 통계학, 환경학과 등이 있다.

대학원 과정으로는 일반대학원 (Graduate School of Arts and Sciences)과 9개의 전문대학원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School of Design, Divinity School, School of Education,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Law School, Medical School, Dental School, School of Public Health)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면모를 갖춘 하버드 대학교의 발달사는 미국 대학교의 발전사와 맥을 같이하고 있으며, 이번 기회에 이 과정을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대학 설립 후 처음 2백년간은 상대적으로 작고, 지역적이지만 자부심을 갖고 있는 지성적인 면의 대학교였지만, 여전히 보수적이고, 수사학적인 원리와 기계적이며 반복적인 교육을 하는 기관이었다.

처음엔 옥스퍼드대를 모델로

또한 학교의 형태도 영국의 옥스포드와 케임브리지 대학교를 모델로 삼은 영국식 칼리지였다. 1782년에 와서야 비로소 독일에서 교육받은 교수들의 영향으로 영국식 교육으로부터 탈피한 개혁이 시작되었으며, 이 때에 신학대학, 의과대학, 법과대학들이 설립되었다. 1841년에 도서관, 1846년에 천문대, 1847년에 이과대학, 1857년에 화학실험실, 그리고 1860년에 자연사 박물관이 설립되면서 진정한 대

학교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추가로 1820년부터 1872년 사이에 치과대학, 자연과학대학, Bussey 농과대학 등의 전문대학이 생기면서 연구와 대학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하버드대학교의 유명한 찰스 W. 엘리오트 (Charles William Eliot) 총장 때인 1872년에 대학원 학과 (Graduate Department)가 이사회 의 승인을 받아 생기게 되었다. 이 이사회에서 대학원학과의 설립이 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대학원 교육이 시작되면, 학교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이유로 대학원학과의 설립에 대한 반대 의견이 대두되었다고 한다. 그 후 1905년에 오늘날의 대학원인 Graduate School of Arts and Sciences로 개칭되어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이 명확히 구분되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1929년의 이사회에서는 학생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와 학과의 정원을 없애고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만 입학할 수 있도록 입학자격요건을 강화하였고, 1945년부터는 최고의 교수진을 확보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학부 학생만도 1만8천여명

또한 1945년부터는 모든 지원자들에게 추천서 제출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새로운 입학제도를 시행하였다. 새로운 입학제도로 인하여 그동안 1천여명을 유지하던 대학원생의 정원이 1943년에는 3백92명으로 줄어 들기도 했으며, 1946년에는 다시 1천9백69명으로 늘었고, 현재는 약 3천명의 대학원생들이 재학 중에 있다. 학부 학생들은 약 1만8천명이 재학중이다.

대학원의 경우는 인근의 대학교 대학원들 (Episcopal Divinity School, Tufts University Fletcher School of Law and Diplomacy, MIT)과 연계등록 (cross registration)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점을 공통으로 이수하기도 한다. 또한 교환학생 (Exchange Scholar) 프로그램을 통해서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 캠퍼스, 브라운대학, 시카고대학, 콜럼비아대학, 코넬대학, 프린스턴대학, 스탠포드대학, 예일대학 등과 공동의 협력을 하고 있다.

대학을 관리하는 기관은 학장과 5인의 평의원, 회계주임으로 구성된 하버드 법인과 졸업생이 우편으로 선출하는 이사회라는 두개의 의결기관으로 되어 있다. 전자는 재정과 집행 운영을 책임지고, 후자는 조인과 자문적 기능을 맡고 있다. 학부 1학년생은 전원이 올드 야드 기숙사에 수용되어 대학 생활의 오리엔테이션을 받게 되며, 2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하우스라고 일컫는 각 학료에 배치되어 개인지도교수에 의한 리버럴 아트(liberal art)를 중심으로 하는 각 전공분야의 교육을 받는다.

물리, 화학, 의학, 경제학분야의 많은 교수들이 노벨상 수상자들이며, 의과대학은 생물학분야와 기초의학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이다. 의과대학은 다른 대학들과는 달리 케임브리지 시에 있지 않고, 브루크라인(Brookline)시의 롱우드(Longwood)가에 여러 개의 건물로 구성된 군락을 이루고 있으며, 여러 개의 제휴 병원과 기관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분자생물학의 「Current Protocols in Molecular Biology」를 집필한 저자들이 많이 있는 매서추세츠 일반 병원(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은 생물학분야와 의

료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연구 그룹을 보유하고 있고, 암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다나-화버 암연구소 (Daan-Farber Cancer Institute), 어린이를 전문으로 치료하는 어린이병원 (Children's Hospital), 산부인과 영역의 전문병원인 Brigham and Woman's Hospital,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Beth Israel Hospital, 그리고 눈 연구의 Schepens Eye Research Institute 등이 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실에는 동양계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데, 한국인 연구자들은 중국인, 일본인 다음으로 많이 있으며, 모두 각 분야에서 인정받는 훌륭한 과학자들이며 이들이 우리나라를 위하여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중에서 다나-화버 암연구소의 경우를 보면, 이 연구소는 Sidney Farber에 의해서 1947년에 설립되어 미국의 국립 암연구소와 협조하에 주로 암에 관한 임상과 기초연구에 주력하는 연구소이며, 5개의 별도의 시설로 이루어져 있고, 1천5백명 이상의 의사와 연구원들이 기초와 임상연구를 하고 있다.

도서관 장서 1천2백여만권

도서관 시스템은 하버드대학 도서관 (12개의 개별도서관으로 구성됨 ; Cabot Science, Fine Arts, Kummel Geological Sciences, Harvard - Yenching, Hilles, Houghton, Lamont, Littauer, Loeb Music, Pusey, Tozzer, 그리고 Widener 도서관)과 학과별 도서관 및 특수도서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버드대학 도서관은 세계의 대학 도서관 중에서 가장 크며, 미국에서는 첫번째

로 생긴 학교도서관이다.

1638년에 목사 존 하버드가 그의 장서 2백60권을 하버드 칼리지에 기증한 것을 계기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1천2백만권이 넘는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과별 도서실들도 많은 전문서적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연구하는 사람들이 수시로 볼 수 있도록 시간성과 편의성을 최대한으로 고려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특수도서관으로는 특히 법학, 경영학, 생명과학, 중국 일본어학 및 문화, 천문학, 인류학, 인종학 등이 있으며, 희귀한 소장 장서들 중에서 특기할 만한 것들은 영문학 및 외국문학, 법률, 경제학, 슬라브문학과 동양 문화에 관한 것들이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한국학의 중심인 연경도서관 (Harvard-Yenching)에서는 우리나라의 귀중한 중요 자료들이 요즘도 종종 발견되곤 한다.

여러 도서관과 도서관에 있는 자료들은 Harvard On-Line Library Information System (HOLLIS)라 불리는 전산 네트워크로 온라인화 되어 있고, 대부분의 도서관마다 HOLLIS 터미널이 있어 쉽게 어디서나 찾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도서목록은 개인 컴퓨터와 연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 이외에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의 여러 분야를 망라하고 있는 박물관과 우수한 수집물을 보유하고 있는 포그 미술관 (Fogg Art Museum), 독일 미술품을 다수 소장하고 있는 부쉬 - 라이징거 미술관 (Busch-Reisinger Museum) 등이 유명하며, 식물박물관 (Botanical Museum), 비교동물학 박물관 (Museum of Comparative

Zoology), 피바디박물관 (Peabody Museum of Archaeology and Ethnology)와 광물 박물관 (Mineralogical Museum) 등도 유명하다.

미국 대통령만 6명이나 배출

「하버드의 공부벌레」라는 텔레비전 연속극에서와 같이, 철저히 교육받은 졸업생들은 사회의 각계 각층에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다수의 노벨상 수상자가 배출되었고, 미국의 대통령으로 6명 (John Adams, John Quincy Adams, Rutherford B. Hayes, Theodore Roosevelt, Franklin D. Roosevelt, John F. Kennedy)이 선출되기도 하였다. 또한 수많은 유명한 문인들을 배출하였는데 T. S. Eliot, Ralph Waldo Emerson, Oliver Wendell Holmes, Henry David Thoreau, Russell Lowell, Robert Lowell, Robert Frost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하버드대학교에서 현재 연구 활동을 하거나 거쳐간 한국인은 상당수 있으며, 국내에도 하버드대학교 동문회가 조직되어 있다. 학부에는 주로 한국인 2세들이 많이 있고, 대학원에는 한국에서 유학한 학생들과 2세들이 반반 정도로 섞여 있으며, 대학원에는 항상 1백여명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우리나라의 인문 사회과학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경영대학원 출신의 많은 기업인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자연과학 계열에도 과학상을 수상한 고급 인력들이 크게 활약하고 있다. ㉔